



1세션 “4대 대북 복합전략과 한반도의 미래” 토론의 요지

이원덕

국민대 교수

■ 하영선 EAI 이사장, 서울대 명예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의 요지

1) 핵 위기와 핵실험의 불일치

- 핵 실험= 핵 위기의 등식에서 벗어난 세 번의 사태 중 2019년 12월28일부터 4일간 열린 제9차 핵 위기-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고
- 사실상 제2의 병진노선 회귀 선언, 또는 핵실험, ICBM의 발사 가능성 등 도발의 재개 가능성 압박한 것으로 읽어야 하는 건지?

2) 대북 4대 복합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1) 제재 2) 억지 3) 포용 4) 내부변환

- 4개의 전략개념 동시 진행 가능한 것인지?
- 1), 2)의 제재, 억지와 3)포용 개념은 서로 모순되고 상치되는 것으로 보여 얼핏 보기에는 양자택일 적인 개념처럼 보이는데 이를 복합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음. 복합전략의 구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?
- 내부변환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북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가 하는 것에 한계. 결국 비핵 경제발전의 신병진 노선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?

3) 북한의 3단계 비핵화 주장에 따르면 결국 북한은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비핵화는 의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됨.

1단계: 선제적 신뢰구축 조치

2단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부분적 비핵화

3단계: 조선반도의 비핵화 시각에 따라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군축 회담을 제안

- 북한 비핵화 의도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?
-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완전비핵화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?
-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- ICBM 포기를 받아낼 수 있다면 북한과 타협할 가능성은 없는지?
- 핵시설-핵물질-핵무기의 포기 대 제재완화, 외교관계 정상화, 평화체제, 경제지원의 맞교환 조합을 맞추는 방식으로 북미협상을 진척시키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?

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기주쿠대학 명예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의 요지

1) 북의 핵 정책 의도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-미사일 완성 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재보장 및 분쟁의 국지화를 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.

- 북한은 진정으로 북미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?
- 작년 말의 전원회의 보고에서 ‘새로운 전략무기’의 등장을 예고했는데 이를 핵-경제 병진 노선의 부활로 보지 않는 이유는?
- 북의 비핵화 정책을 3단계로 파악하고 제3단계는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핵군축 협상으로 보

는 하영선 교수의 시각과의 입장 차이는?

- 북미협상에서 북이 핵 리스트 제시하여 중국적으로 완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는지?

2) 북핵문제는 海圖 없는 항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실 상의 남북 비핵-공존, 미 중-세력균형으로 2+2 더 나아가 2+2+2(러일)의 세력균형으로 남게 될 가능성을 시사.

- 헬싱키 체제와 같이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국의 현상승인과 규범 공유와 그 기반 위에서의 국익추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는 무엇을 의미? 북핵 보유가 현상유지를 이미 깨는 행위는 아닌지?
- 더 나아가 남북한 자신이 세력균형을 운영하기 위한 외교적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GSOMIA의 일시 파기를 비판했는데 이는 어떤 맥락인지?
- 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경제보복으로 나오자 이레 대한 대항카드로 GSOMIA 카드를 사용한 것은 전략적인 오류였음은 인정.

3) 북미협상은 하노이 노딜 후 미국은 애초의 빅딜(일괄타결)에서 점차 단계론적 비핵화 쪽으로 진화(접근)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협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할 수 있음.

- 최근 이란사태가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?
- 트럼프의 대북협상 의욕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?

4) 북미간의 협상이 가동되지 않는 한 북일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는지? 도쿄 올림픽 개최의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북일 협상의 가능성은? 북미 간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북일 협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가 제기된다면 진척이 어렵지 않을까?

5) 북핵의 국제관계를 4인 지도자 간 게임으로 보는 흥미로운 시각 제시

김정은-미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 완성 후 트럼프로부터 체제보장, 제재해제, 미군의 축소 등을 얻어내고 단계적인 비핵화로 대외관계 개선하여 개방개혁 추진

트럼프-빅딜(일괄타결)로 비핵화 실현, 대선국면에서 외교적인 성과 과시

문재인-전쟁회피, 남북대화 선행, 북미교섭 중재,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

시진핑-제재결의 준수,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담당, 긴장증대나 미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를 경계, 비핵화 진전과 평화체제 구축은 미군 감축에의 호재, 북미협상 실패 시 북한은 중국에 의존

- 이렇게 보면 4자 관계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개성과 전략
- 선거로 교체되는 건 한미 뿐, 북 중은 당분간 상수

■ **토론자:** 이원덕_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.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,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, 일본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. 외교부, 통일부,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평통 등의 자문위원 이었으며 한일신시대 공동연구 한국 측 간사 (2009-2013) 이었다. 미국 피츠버그 대학 객원연구원, 도쿄대학 객원교수,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장, 현대일본학회 회장,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. 최근 논문으로는 <한일 역사마찰의 정치학>(2019), <South Korea-Japan Relations in Crisis: How to Find a Way Out>(2019), 공저, 편저로는 《질곡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》(2017), 《일본 파워 엘리트의 대한정책》(2016), 《한중일 3 국관계: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》(2015) 《한일관계 1965-2015 정치》(2015) 등이 있다.

■ **담당 및 편집:** 백진경 EAI 연구원
문의: 02-2277-1683 (ext. 209) j.baek@eai.or.kr

-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-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.
-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.
- 본 토론문은 동아시아연구원이 2020년 1월 21일 개최한 [Global NK 핵inSIDE 토크] 2020 동아시아연구원 대북 통일전략 토론회의 자료입니다.

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
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, 909호 (을지로4가 삼풍빌딩)
Tel.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

Email eai@eai.or.kr Website www.eai.or.kr